

## 포스코에서 사고 후 산 노동자도 죽어

사내 교통사고 조치 미흡으로 사망 ... “17년 일 한 사람 죽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2020년 12월 23일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정성수 씨가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오후 고인의 유가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17년 동안 포스코에서 일한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망했는데 9일이 지나도록 사과하는 이도, 책임을 지는 이도 없었다” 라고 분노했다.

노조와 유가족은 “포스코는 고인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촉구했다.

고 정성수 노동자의 아들 정하준 씨는 “우리 가족은 포스코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라고 포스코를 규탄했다.

정하준 씨는 “사고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답답함에 포스코에 전화했지만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

정하준 씨는 “사고 직후 아버



지는 헬멧을 본인 스스로 벗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30분 정도 살아 있었다고 한다” 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없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다. 사고 직후 출동한 포스코 119의 잘못된 조치로 인한 사망사고” 라고 폭로했다.

### 포스코, 사고 현장 훼손

정성수 씨 유족이 12월 27일 포스코 현장을 찾았을 때 포스코는 이미 현장의 사고 흔적을 훼손했다. 정성수 씨의 오토바이는 한쪽

에 치워져 천으로 덮여있었고, 현장에 가로등, 신호등, 차선 등 시설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하준 씨는 “유족의 요구는 간단하다. 명확한 사고 원인을 알고 싶다.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 라며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호소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고 정성수 노동자는 포스코가 현장에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죽었다” 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중대재해이다. 포스코는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성수 노동자의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여 일째 단식투쟁을 하는 고 김용균 노동

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를 찾아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월 24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중대재해 시 부분 작업중지 명령’ 을 했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마저도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도로에만 한정된 조치일 뿐,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다른 사내 도로는 같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한 달 사이 다섯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근본 안전시스템 개선이 아닌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만 피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노조파괴 10년’ 유성기업 2011년 임단협 끝났다

지회 31일 총회, 8년 치 임단협 의견접근안 가결 ... 주간연속 2교대제 · 월급제 교섭 재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020년 마지막 날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2011년 임금·단체협약 의견접근안을 통과시켰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사측 노조파괴로 중단됐던 2011년 임금·단체교섭을 10년 만에 마무리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는 12월 30일 교섭에서 사측과 2011년과 2014년~2020년까지 여덟 해에 해당하는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2012년과 2013년 임단협은 당시 교섭대표노조인 기업노조가 합의했다.

노조 유성기업 두 지회는 12월 31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임단협 의견접근안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조합원 260명 중 240명이 투표했다. 210명 찬성, 30명 반대, 찬성률 87.5%로 임단협 의견접근안을 가결했다.



유성기업 노·사는 임단협에 이어 주간연속 2교대제 · 월급제 교섭 재개를 약속했다.

더불어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측 사과·재발 방지·책임자 처벌 ▲CCTV 철거 ▲노동조합 간 차별 금지 ▲형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철회 ▲2011년 노사분규 피해자·부상자 보상 ▲노동조합활동 편의 제공 ▲조합원 심리치유 협조 ▲

미지급 임금·위로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우리는 승리 믿었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밤에 잠 좀 자자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했을 뿐인데, 10년을 고통받았다” 라며 “고되지만, 우리가 옳았기에 끝까지 싸

우면 승리하리라 믿었다. 결국, 오늘 10년 투쟁을 마무리했다” 라고 밝혔다.

도성대 지회장은 “사측과 이명박 정권·현대차 자본이 합작한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뿌리 뽑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아쉬운 결과지만, 2020년을 넘기고 싶지 않았다”라며 “여전히 정리해야 할 문제가 쌓여있다. 지금까지 싸웠듯이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조 지키며 유성기업지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끝이 도대체 언제일까. 조합원들이 불안해할까 봐 보는 눈 없을 때 혼자 많이 울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정훈 지회장은 “사측이 계속 말을 뒤집어 교섭을 1백 차례 넘게 했다”라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10년 세월 동안 조합원들이 진짜 고생했다. 조합원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오랜 시간 유성기업지회 투쟁에 함께 해준 수많은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고맙다”라며 “10년 투쟁을 마무리 짓는 오늘을 금속노조 중심으로

다시 마음 모으는 계기로 삼겠다. 새해에는 유성기업지회 조직확대 사업에 힘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시 조직확대사업 나선다”**

유성기업은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 시행 교섭을 질질 끌면서 노조파괴를 시작한다.

사측은 200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했다.

사측은 특별교섭을 10여 차례 여는 동안 한 번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교섭이 공전하자 유성기업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2011년 5월 13일 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회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모두 관련 법 규정을 거쳤다.

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5월 18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부분파업 2시간 만에 불법 파업 운운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경비용역을 배치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5월 24일 경찰 31개 중대가 유성기업에 투입됐다. 경찰은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조합원 약 600명을 폭력 연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현대자동차 사측의 유성기업 사태 개입 사실이 밝혀졌다. 현대차는 유성기업 사측과 창조건설팅 관계자를 불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방안을 공모했다. 실제 유성기업 사측은 직장폐쇄 직후 기업노조 설립을 전폭 지원했다.

2016년 3월 한광호 유성기업영동지회 조합원이 사측의 노조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2017년 12월 부당노동행위(노조파괴)로 1년 2개월, 2020년 5월 배임·횡령죄(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로 1년 4개월 등 모두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